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21:1-9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 두시고 감람산 벳바게에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곧 가서 나귀를 몰고 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이 정녕 그들의 왕으로 오신다고 믿고 왕처럼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과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 나귀 주인과도 같은 사람

사실 그는 크게 드러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가야 이 나귀 새끼가 있는지 그곳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질서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깔려 있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귀의 주인에게 요청하여 나귀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나귀의 주인은 순종하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나귀를 내어 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도 공통적인 점은 이 나귀 주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무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작은 헌신을 하고서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행

위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과장해서 보이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나귀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엄청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늙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 139:2-3)

하나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섬과 우리의 작은 행실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조용히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이 돋보이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내어놓는 이 나귀가 다시 자신의 손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사람의 재산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나귀를 두말하지 않고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가지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 앞에 그는 소중한 나귀도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일에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네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롬 7:13)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인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하지만, 내가 철저히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온전히 드러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고 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나귀 주인에게 주목해서 봐야 하는 점은, 그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 21:3)

멀쩡한 자신의 나귀를 누군가 끌고 가려고 하며 하는 말이 “주님께서 쓰실 것”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자신의 나귀를 보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된 누가복음 19:20 에는 이 나귀가 ‘한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나귀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한번도 타보지 못하고, 부러보지 못했던 짐승을 요구할 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 “오늘은 내가 쓸 테니 내일 보내겠소”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귀 주인이 내일 주겠다고 미루었다면, 예수님에게는 그 나귀가 더 이상 필요없는 나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오늘 나귀가 필요하지, 내일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바로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로 넘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여러 모양의 헌신들에 대해,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그 즉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 겹옷을 벗어 길에 퍼는 사람

그 당시에 겹옷은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자산과도 같은 겹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

시는 그 길에 깔았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다 걸 수 있습니다. 도박에서도 좋은 패를 쥐게 되면, 자신의 것을 모두 그 판에 거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보다 큰 분은 없습니다. 그 분께 인생을 올인하면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겹옷을 기꺼이 벗어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인생, 내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올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3. 찬송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높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향해 환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즉, ‘우리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자녀의 아픈 부분을 고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어떤 희생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복음의 의미를 알고 영혼구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내가 만약 나귀 주인의 입장이라면, 낯선 사람들의 나귀를 달라는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그 낯선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나귀’ 라고 말한다면 나의 반응은 달라졌을까요?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그 나귀는 바로 ‘오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며, ‘오늘’ 해야 하는 헌신을 ‘내일’로 미루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봉사나 섬김, 물질이나 시간의 헌신..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나누어 봅시다.